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크리스천의 실력

제5차 차세대 목회자 초청 영적 OC 대각성 새벽기도회

제5차 21인 차세대 목회자 초청 OC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가 지난 7월 27일(월)부터 8월 19일(수)까지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에서 진행됐다. 집회는 주일을 제외한 주중 오전 5시 30분과 토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됐다.

13일 집회에서 최윤정 목사(월드미션대학교 부총장)는 다윗의 삶을 통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대왕고래와 범고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설교를 시작했다. 최 목사는 범고래가 새끼를 공격하는 상황, 대왕고래 어미가 나타나 새끼를 얹은 바다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언급하며, 때로는 어미의 행동이 새끼에게 죽음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성경을 보다 보면 가



최윤정 목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기독일보

끔씩 하나님께서 이와 같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미움을 받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으며,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지

키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최 목사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저주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다윗

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한 하나님을 신뢰했다.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윗의 삶을 설명하면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회복탄력성이란 역경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뛰어올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라며 “근육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했다.

이어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실을 말하며 “얼마나 도망 다녔으면 블레셋까지 피했겠나. 얼마나 자신이 모멸스러웠겠고 한심했겠나”라며 “답답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음의 신앙의 근력”이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영혼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목사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

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모소 대나무는 심고 나서 6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6년이 지나고 나면 6주 동안 15미터까지 자란다”며 “그동안 대나무는 땅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인내는 고난의 시간을 의미 없이 참는 것이 아니다”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숙하고 준비되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반드시 그 위에 열매 맺게 하신다”고 밝혔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해야 한다”

최 목사는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인생에서 미로에 갇힌다”며 “한번 들어가면 방향을 모르고 갇히게 되는 것처럼, 인생은 크고 작은 미로로 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마치 갈릴 것 같은 미로 속에서 살아간다”고 설명했다.

토마스 맵 기자 → 4면에서 계속

선, ‘815런’ 독립유공자 후손 위해 26억 모금

한국해비타트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 위해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가수 선이 2026년 광복절을 맞아 기부마라톤 ‘815런’을 마쳤다.

‘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기부마라톤 캠페인이다.

한국해비타트와 선은 2020년부터 ‘815런’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 ‘815런’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지원을 위한 기부금 26억여 원이 조성

됐으며, 누적 기부금은 100억여 원이다.

2026 ‘815런’은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버추얼 런과 8월 15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오프라인 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올해 오프라인 런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7천여 명이 참가했다.

광복절 당일 오후 월드컵공원에서는 오프라인 런 참가자들이 8.15km를 완주했다.

앞서 새벽에는 가수 선이 81.5km 달리기를 8시간 20분 2초만에 완주했다. 5인 1조로 구성된 45명의 페이스서는 선과 함께 발을 맞추며 완주를 도왔다. 이영표, 박보검, 권

은주, 조원희, 진선규, 고한민, 심으뜸, 김형철, 원형석(스톤), 김동현, 진태현, 곽윤기, 신기해, 권화운, 이연진 등이 페이스로 함께 뛰었다.

개인 참가비와 후원금 기준 150여 기업이 후원금을 합쳐 총 26억 482만 1,750원이 모였으며,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가수 선 씨는 러너들에게 “우리가 함께 달리는 8.15km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분들께 보내는 감사 편지라고 생각한다”며 “이 마음을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함께 이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크리스천 투데이 제공]



페이스서들과 7번째 81.5km 완주에 성공한 가수 선 씨가 아들·딸과 함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있다. © 한국해비타트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정부보조
상당 환영

NEWST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교회및 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 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 T 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NICHE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복음 전파엔 은퇴 없다” 원로목사회 제85대 회장단 출범

제85대 회장 이상기 목사 취임
제84대 회장 김수신 목사 이임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제85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8월 17일 오전 11시 사우스 패서디나 평강교회(송금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제84대 회장 김수신 목사가 이임하고 이상기 목사가 제85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제1부 감사예배는 최영봉 목사(본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영진 선교사와 박미례 목사의 찬양에 이어 정해진 목사가 기도하고, 엄규웅 목사(본회 부서기)가 누가복음 2장 52절을 봉독했다.

김삼도 목사(실비치 평강교회 담임)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윌리엄 댄포스(Wil-liam Danforth)의 자기계발서 《I Dare You!》의 ‘Four-Square(정사각형)’ 철학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종교적 요소가 정사각형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준석 목사(남가주교협 음악부장)의 봉헌특송, 정상희 목사(본회 회계)의 봉헌기도에 이어 정시우 목사(본회 고문)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제85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패서디나 평강교회(송금관 목사)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제2부 이·취임식은 임규서 목사(본회 감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기도하고 이상기 신임회장이 취임선서를 했다.

이어 김수신 목사(이임목사)의 이임사와 이상기 목사의 취임사가 진행됐다. 이상기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평생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선배 원로목사들의 기도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 목사는 “평생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선배 원로목사님들의 기도와 희생이 오늘의 남가주

교계를 튼튼히 세운 모퉁잇돌이 되었다”라며 “제85대 회장으로 섬기는 동안 원로목사님들을 섬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목회 현장에서는 은퇴했지만 기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며 후배 목회자들과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내놔다.

이·취임식에서는 직전회장이 신임회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하고, 신임회장이 직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제85대 회장단 소개와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축하 순서에서는 남가주원로목사 중창단이 축하를 불렀으며, 김은목 목사(제56대 남가주교협회장), 지용덕 목사(남가주교협 부이사장), 신원철 목사(원로목사회 증경회장), 한경환 장로(남가주한인장로협회장)가 축사를 전하고, 김재연 목사와 박종대 목사가 격려사를 나눴다.

김은목 목사는 과거 남가주 교계를 이끈 주역이 지금의 원로 목사님들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지용덕 목사(미주 한인기독교총

연합회 증경회장)는 원로목사회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이다”라는 고백을 듣고 “모세처럼 온유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큰 머슴”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나눴다.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제65회 회장)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선고를 받았으나 웃음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게 된 간증을 나누며, ‘63개 웃는 근육’으로 원로목사회를 이끌어 가기를 축원했다.

김재연 목사는 원로 목사들을 믿음의 선구자로 칭하며, “현직에서 물러나셨을지라도 영적 지도력과 기도와 권면의 삶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후배 목회자들에게 값진 유산이 될 줄로 믿는다”고 격려사를 나눴다.

축사와 격려사에 이어 평강살롱 찬양팀의 축하특송과 남가주원로목사회 하모니카합주단의 축하특주가 이어졌으며, 신희성 목사(원로목사회 증경회장)의 폐회축복기도로 이·취임식을 마쳤다.

제85대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는 회장 이상기 목사, 수석부회장 정완기 목사, 부회장 최순길·표세홍 목사, 총무 최영봉 목사, 서기 임영호 목사, 부서기 엄규웅 목사, 회계 정삼희 목사, 감사 박종대·임규서 목사 등으로 조직됐다. 주디 한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 허브 ARI 연구소 개관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와 다음 세대, 세계선교를 위한 연구 플랫폼 ARI(Asian American Research Institute, 연구소장 이병구 부총장)이 공식 출범했다.

GMU는 8월 17일 오후 2시 교내 채플실에서 ‘ARI 연구소 개관 감사예배 및 개소식’을 갖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연구 프로젝트와 인적·학술적 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체계적인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한기홍 이사장 설교, 최규남 총장 축사, 영리 허틱 박사 격려사, 이병구 부총장 연구소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 후에는 ARI 헌관식이 진행됐다.

연구소장 이병구 부총장은 ARI의 설립 배경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ARI를 “흘어져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나로 묶는 빅 텐트”라고 표현하며,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연구의 자료와 성과를 한곳에 축적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연구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연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가 ARI(Asian American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개관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일보

구 결과 출판과 포럼 개최, 다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부에서 의뢰받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ARI가 필요한 연구 주제를 직접 발굴해 연구비를 확보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1억 달러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기홍 이사장은 잠언 24장을 중심으로 연구소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아시안 아메리칸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신앙과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실제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어렵다며, 지역과 문화적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

대와 지식은 변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만큼 모든 연구가 성경적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연구 결과가 학교와 연구자들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계와 다음 세대에 전달돼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유산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소가 지식의 축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널리 나누며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통

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남 총장은 ARI 설립을 GMU가 연구 중심 신학대학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최 총장은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교회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MU가 축적해 온 연구 경

험을 바탕으로 기초자료 구축과 출판, IT와 AI 등 디지털 연구 환경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허틱 박사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부흥의 신앙적 유산을 미국의 상황에 맞게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허틱 박사는 한국교회의 신앙적 DNA를 미국 사회에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아시안 아메리칸과 다문화 사회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가 학문적 결과물을 쌓아두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연구가 돼야 한다고, ARI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을 미국 교회와 다음 세대에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했다.

GMU는 ARI를 통해 아시안 아메리칸의 신학과 선교, 문화와 사회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교회와 학계에 공유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국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2026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설명회 및 준비기도회

'2026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9월 13일 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

2026년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9월 13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설명회 및 준비기도회가 지난 17일 대회 임원과 다민족 기도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대회는 'Repent, Revive, Restore(회개, 부흥, 회복)'를 기조로,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기홍 목사가 대표대회장을 맡으며, 은혜한인교회와 JAMA, OC 교협, 남가주교협, 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등이 주최하고 다민족연합기도대회준비위원회가 주관한다. 한기홍 목사와 울프 갱(Wolf Gang) 목사가 대회장으로 사회를



9월 13일 주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를 앞두고 설명회 및 준비기도회가 열렸다. © 기독일보

맡은 이날 모임은 심상은 목사와 울프 갱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해 송정명 목사의 환영 인사, 한기홍 목사의 비전 캐스팅, 이종용 목사의 격려사, 강순영 목사의 경과보고, 데이빗 디아즈(David Diaz) 목사의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송정명 목사는 지난 2011년 로즈볼에서 시작된 첫 다민족기도대회를 회고하며 "15년 전 몇몇 목회자들이 로즈볼이 확보됐으니 다민족 기도회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해왔다"며 "기도하자는 데 반대할 목회자는 없다는 마음으로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는 미국의 영적 회복과 청교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 교

회와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이빗 디아즈 목사는 다민족 기도대회를 통한 부흥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과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며 통성으로 기도했다. 길버트 자라고자(Gilbert Zaragoza) 목사, 김미영 전도사, Sam Han 목사, 데이빗 스

티븐 형제, 전영숙 목사가 각 주제별 기도를 이끌었으며 이종용 목사의 축도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대회 측은 미국 사회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과 교단을 넘어 한자리에 모여 회개하고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번 대회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회에서는 미국의 부흥과 회복, 이민사회와 다음 세대, 세계 각 지역을 위한 연합기도가 진행된다. 유럽, 히스패닉,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이스라엘, 무슬림 국가, 우크라이나,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등을 위한 기도도 마련된다. 조셉 리 기자 △ 중보기도팀 연합기도대회: 8월 27일 목 오전 1시 은혜한인교회 △ 대회 리허설: 9월 10일 목 오후 1시 은혜한인교회 △ 본 대회: 9월 13일 주일 오후 4시 문의: 강순영 목사 (310) 995-3936

ANC 온누리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ANC 장학회 (회장: 강승호 장로)는 8월 15일(토)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올해는 21주년을 맞아 대학생 72명, 대학원생 42명 총 11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대학생에게는 \$1500, 대학원생에게는 \$2000씩, 총 \$192,000을 지급했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신학 대학원생, 일반 학생으로 구성됐다. ANC 장학회(ancsf.us)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지원뿐 아니라 크리스찬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 선한 일꾼들을 지원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 기독일보

이용규 선교사 간증 집회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의 간증집회가 8월 28일(금) 저녁 7시 30분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열린다. 서울대 학부와 대학원을 나와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몽골 선교사로 헌신했다. 몽골국제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선교를 위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용규 인도네시아 선교사

제27기 상담봉사원 훈련 세미나

8월 25일 - 9월 29일 화, 목
오후 7시-9시 (ZOOM 강의)

경제적 빈곤,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오랜 투병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병고) 등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남가주 한인사회에 끊임없이 전혀져 오고 있다.

전문가들과 연구진들은 한인 노년층의 취약 원인으로 크게 세가지를 꼽는다. 첫번째, "문화적 고립과 체면 문화"가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둘째, 언어적 장벽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시니어 공동체 인프라와 가족 해체(자녀 세대와의 분가 및 소통 단절)가 노인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주요 환경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생명의전화 박다윗 목사는 고립과 재정적,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24시간 전화 옆을 지킨다.

박다윗 목사는 지난 8월 16일 미주조선일보에 보도된 70대 한인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숨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8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까지 미주

일자	요일	강의주제	강사	강사소개	장소
8월25일	화	개강예배와 Orientation	박다윗 목사 노영호 목사	생명의 전화 원장 새한교회 담임	참석
8월27일	목	우울증 극복과 회복을 돕는 상담 기법	성소영 박사	임상심리학 박사	ZOOM
9월01일	화	회복 탄력성과 상담	김현경 박사	월드미션대학 교수	ZOOM
9월03일	목	생명의 전화 상담의 이론과 실제	박다윗 목사	생명의 전화 원장	ZOOM
9월08일	화	공허감 상실감 절망감 치료 상담 기법	엄성현 박사	상담심리학 박사	ZOOM
9월10일	목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상담 기법	양광욱 박사	미주장신대 교수	ZOOM
9월15일	화	인터뷰 및 모니터링 실습 및 시간표	원장 및 스텝	(봉사자 필수 참석)	참석
9월17일	목	부부갈등 치료 상담 기법	김경준 박사	월드미션대학 교수	ZOOM
9월22일	화	자살 및 위기개입 상담 기법	김재원 선생	정신건강국 소설위키	ZOOM
9월24일	목	효과적인 경청과 공감 기법	송경화 박사	월드미션대학 교수	ZOOM
9월29일	화	수료강사예배(다과연예배 및 축하 연)	박다윗 목사 송금관 목사	생명의 전화 원장 평강교회 담임	참석

평안교회 교육관에서 '제27기 상담 봉사원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세미나는 8월 25일(화), 9월 15일(화), 9월 29일(화) 미주평안교회 교육관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외의 강의는 ZOOM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다윗 목사, 노영호 목사(새한교회 담임), 성소영 박사, 김현경 박사(월드미션 대학교), 엄성현 목사(상담심리학 박사), 양광욱 박사(미주장신대 교수), 김경준 박사(월드미션대학교 교수), 김재원 선생(정신건강국 소설위키), 송경화 박사(월드미션대학), 송금관 목사(평강

교회 담임) 등이 강사로 선다. 생명의 전화는 한인 동포들이 이민 생활에서 겪는 고민, 갈등, 좌절, 슬픔과 괴로움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자세한 일정은 웹사이트(<https://www.shalomlifelineusa.com>) 참고. 일시: 8/25-9/29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 장소: 미주평안교회 교육관 170 Bimini Pl, LA CA 90004 문의 전화: 213-480-0691, shalomlifelineusa1988@gmail.com <https://www.shalomlifelineusa.com>에서 신청서 작성.

이래도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을 아는 사람에게 대강 가입하시겠습니까?

데이터로 보는 캘리포니아 보험

-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 회사(캐리어)는 - 약 270~300여 개 사
 - ✓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 - 생명보험 : 5~15개 - 개인은퇴연금 : 3~10개
 - ✓ 한 상품당 선택할 수 있는 라이더(특약)의 수 - 생명보험 : 보통 5~15개 - 개인은퇴연금 : 보통 3~8개
 - ✓ 평균적으로 동시에 선택하는 라이더 수 - 2~5개 정도
 - ✓ 여러분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 할 수 있는 확률은? - "수십만 대 일 ~수천만 대 일"
- 캘리포니아보험국 '2024 MARKET SHARE REPORT' -

“보험 선택은 수백만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기준으로 1~3개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상품에 대해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gent 신정호 (Lic#4462712)

- Cell : 949-522-0778
- jeonghoshin@allmerits.com
- Office : 323-433-4000
- Fax : 888-870-0802
- 6281 Beach Blvd, Ste 116. Buena Park, CA 90621

아메리츠파이낸셜
ALLMERITS FINANCIAL
Your Partner in Financial Empowerment

유튜브 채널
새비이코노미



에이전트 모집중 재정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해방 81주년 기념식 및 우남 네트워크 USA 창립식

"미주 교민들이 주치가 되어 만들어 가는 단체 되겠다"는 포부 전해

광복절을 맞아 ‘해방 81주년 경축 대한민국 건국 78주년 기념식 및 우남네트워크 USA 창립식’이 8월 15일 오전 11시 LA 가든스위트 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남가주 한인 교계와 보수·애국 단체 관계자들, 탈북민들이 참석해 건국의 의미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행사는 우남네트워크 USA와 AKUS 한미연합회 LA, 한기총 남가주지회가 주최했으며, 미주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와 미주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 등 미주 단체들이 협력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기념식, 3부 남북 자유 통일을 위한 구국 기도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세현 목사(AKUS 한미연합회 L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에서 황준석 목사(우남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시편 127편 1절 본문을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황준석牧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신앙과 건국 과정에 대해 전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선



해방 81주년, 건국 78주년 기념식 및 우남 네트워크 USA 창립식. © 기독교일보

서하고 기도로 시작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배재학당 시절 선교사들로부터 서구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접한 뒤 정치 개혁 운동을 벌이다 투옥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변화되고 선진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차디찬 한성감옥에서 쓴 두꺼운 책이 <독립정신>이다.”

그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출옥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워싱턴대 학사와 하버드대 석사 과정을 거쳐 1910년 프린스턴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

사 학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국 후 YMCA 학감으로 부임해 약 1년 5개월간 전국을 돌며 청년 단체를 조직하고 청년들을 교육했다고 전했다.

황 목사는 또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첫 회의에서 당시 임시의장이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라고 말했다.

정영득 목사(우남 네트워크 USA 부이사장)의 축도로 1부 예배가 마무리됐다.

2부 기념식은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국민의례, 김은목 목사의 개식기도, 한인 2세 학생들이 제작한 대한민국 건국 여정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최학량 목사

의 기념사, 황준석 목사의 우남네트워크 소개, 취임 축하패 증정, 미주여성코럴의 특별찬양, 현춘삼 집사의 남북통일선언문 낭독, 샘신 목사의 기도가 이어졌다.

한인 2세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여정에 관한 자료를 찾아 직접 영상을 제작했으며, 박세현 목사는 AKUS 한미연합회 미주회장 김영길 장로가 마련한 감사장(Certificate)을 이들에게 전달했다.

최학량 목사는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난 78년간 지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전쟁을 억제하는 중요한 안보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황준석 목사가 우남네트워크가

설립된 배경을 설명하고, 조선환 장로, 노명수 장로에게 취임 축하패를 증정했다.

조선환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신앙심과 애국심과 그 결단을 미주 교민 사회에 전하겠다”고 말했다고, 노명수 이사장은 “차세대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건국 정신을 계승하는 사명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구 목사는 “미주 교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이승만 대통령 관련 단체가 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3부 순서는 강태광 목사의 인도로 남북 자유 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진행되었다. 기도 후 만세삼창에 한기형 목사(AM 1230 기독교 방송 대표)의 기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주디 한기자

대왕고래가 새끼고래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이유

→ 1면 기사 <고난 해석>에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최 목사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며 “땅에서는 해멜 수밖에 없지만 위에서 보면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면서 “내비게이션은 교통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트래픽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준다”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은혜의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최 목사는 “신앙생활에서도 실력 있는 크리스천과 실력 없는 크리스

천이 있다”며 “실력 있는 크리스천은 공명과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씀과 공명한 사람, 말씀의 울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내 삶에 울릴 때 그 공명을 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말씀의 울림에 따라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성경은 단지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내 삶을 공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상처와 고난,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해석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셉의 삶을 예로 들며 “요

셉은 창세기 50장에서 형제들에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했다”며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석했다”고 했다.

최 목사는 “해석이 없는 고난은 트라우마가 된다. 고난을 잘 해석하면 고난이 사명이 되게 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한다”며 “사명 공동체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해석하고,

서로에게서 사명을 발견해 주며 사명자로 행하는 공동체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임이고 교회”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다시 대왕고래와 새끼고래의 이야기를 통해 설교를 마무리했다.

그는 “대왕고래 새끼가 어미고래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냐. 적과 어미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미를 의지하고 그 행동을 따라야 살 수 있다”며 “우리로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연단하신다”고 말했다.

이번 새벽기도회는 OC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고,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공동주관하며,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CHTV, 세계어머니기도회, 미주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사람과사회가 협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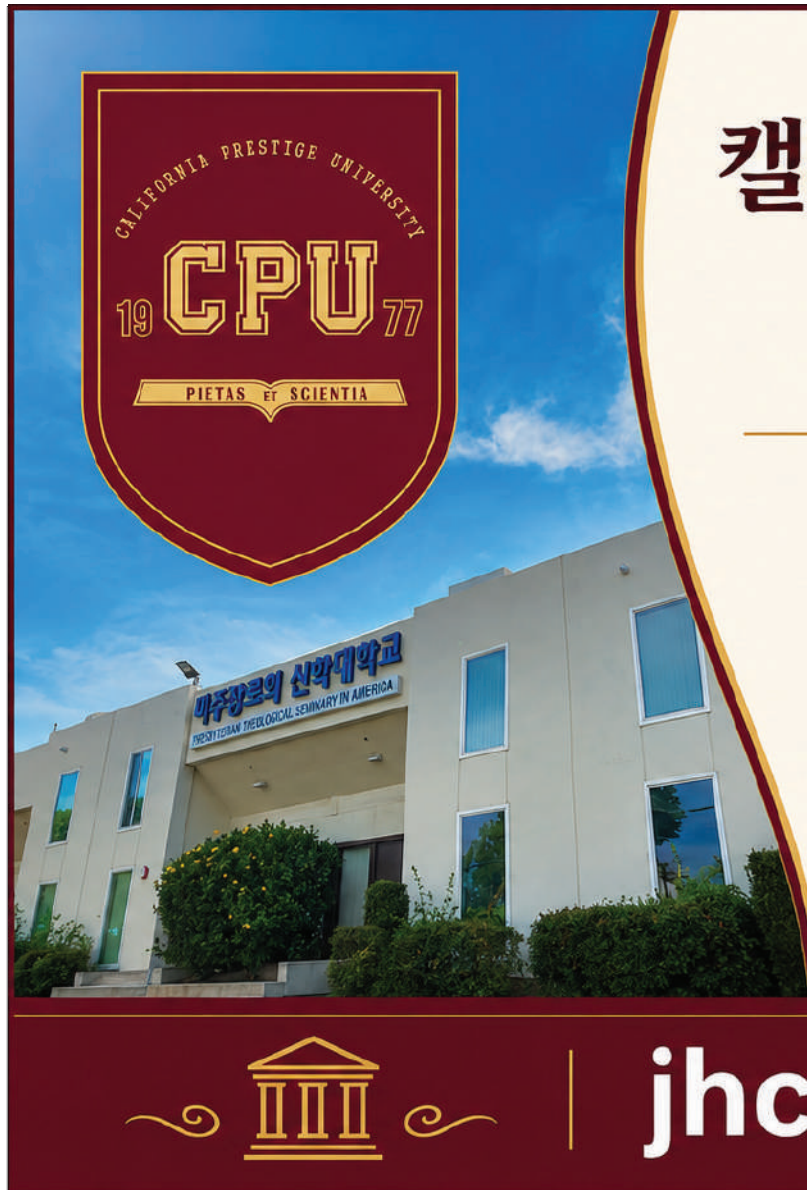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내이선에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40년 보험 전문인 JAY PARK이 자신있게 소개하는

자동차, 사업체, 메디케어 보험 CA ins. Lic#OC84280
(213) 380-9801 2975 Wilshire Blvd., Suite 506 Los Angeles, CA 90010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직원 모집

◆ 함께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

-  **업무**
간단한 사무 업무 및 전화 상담·세일즈
-  **근무시간 (선택 가능)**
월-금요일 오전 9시-낮 12시
또는
월·수·금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  **지원방법**
연락처와 간단한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jhchung@cpu.edu**

 **센터메디컬그룹**

제 5 회 시니어

골프대회



— 참가비 —
\$200
만 64세 이상 시니어



전원혜택

총 **\$1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참가자 전원과 함께 나눕니다!



이웃돕기 성금 기부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 샷건
LOS COYOTES COUNTRY CLUB
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센터메디컬그룹 문의
888 – 847 – 3098

문의시간
9AM ~ 5PM

제52차 CBMC 한국대회... ‘일터 복음화’ 사명 결단

한국기독실업인회(한국CBMC) 주최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국내외 2천여 명의 기독 실업인과 전문인이 한자리에 모여 일터 복음화의 사명을 되새기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한국기독실업인회(한국CBMC)가 주최한 ‘제52차 CBMC 한국대회 FOR KCBMC WORLDWIDE’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막 16:15)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성경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CBMC의 정체성 안에서 전도의 사명에 앞장설 것을 결단하는 자리였다.

장세호 대회장 개회사..75년의 역사
한국CBMC 중앙회장인 장세호 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75년 전 한국CBMC의 역사가 시작된 뜻깊은 도시 대구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한국대회를 전도 열정이 회복되어 초심으로 일터의 기적을 계획하고 꿈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또한 “시대와 환경은 빠르게 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변하지 않는다”고 도전했다. 제52차 CBMC한국대회 준비위원장 김한수 한국CBMC 대구연합회장은 “선배들이 땀과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도시 대구에서 CBMC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일터가 다시 살아나고 대구 땅과 대한민국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 안의 한 몸 공동체
‘하나되자’라는 일별 주제로 개막한 12일 첫째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르심과 비전을 품은 CBMC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기 위해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시간이었다. 재미 한인 동포 2~3세 자녀들과 한인 입양인 등으로 구성된 셋별한국문화원 셋별선교단의 국악연주와 한국 무용 등 시선 공연과 찬미위십의 찬양에 이어 이용기 대회부회장이 개회기도를 드렸으며, 이건호 순복음대구교회 목사(한국CBMC 세종지회, 광화문지회 지도

목사)가 ‘하나됨의 능력’(창 21:22)이라는 제목으로 개회예배 말씀을 전했다. 이건호 목사는 “2박 3일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내 인생과 내 비즈니스에 놀라운 돌파와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의 만남이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2천 명의 참가자로 인해 대한민국과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CBMC 기수단 입장과 개회선언
CBMC 한국대회는 연합회장들로 구성된 기수단 입장에 이어 장세호 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영상 축하사에서 “한국기독실업인회는 한국전쟁 중 대구와 경주의 실업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린 만큼 경북에서 새마을운동과 산업화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CBMC가 경쟁보다 복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일터를 만들며, 경제도 공동체도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수진의 축하연주와 바리톤 염종호의 축하공연에 이어 이광배 강사(강북비전지회)의 사회로 배우 진태현·박시는 부부가 토크콘서트에서 ‘하나된 믿음의 가정’에 대해 나눴다. 진태현·박시는 부부는 이날 예배와 말씀,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나누고, 입양 스토리를 소개한 데 이어, 일터에서 탁월함과 성실함, 책임감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태현 · 박시는 부부 간증
진태현·박시는 부부는 또한 “주변의 기독 청년들, 미래를 이끌 다음세대를 위해 CBMC 회원들이 힘을 많이 써서 아이들이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꿈을 이루도록 응원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간증콘서트는 비전스쿨 57회 동기회 김종기 동기회장, 박철웅 회장(광주지회), 김정희 대표가 ‘비전스쿨을 통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비전스쿨과 동기회 모임을 통해 신앙이 자라가고, 사업적으로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



제52차 CBMC 한국대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며 가고 있다면서 “비전스쿨에 참여하고, CBMC 지회활동과 비전스쿨 동기회 활동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계속 성장하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일터에 비전을 세워가는 한국CBMC 비전스쿨은 지난 6월까지 127기가 진행됐다.

양계와 적정 기술로 자립형 선교 모델 제시
양계와 적정기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보나콤 공동체 강동진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주제의 특강1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60여 국의 가난한 지역에 친환경 자연양계 기술로 양계장을 세운 자립형 농협 선교 모델과 복녜땅 및 사막화한 땅을 살리기 위한 산림 결합형 친환경 양봉사업 모델 등을 소개했다. 강 목사는 “제 인생의 목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잃어버린 가난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살게 할 것인가에 있다”며 “이 과업을 가지고 목사이지만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고 간증했다.

이어 해외한인 CBMC인 찰스윤 북미주총연합회장, 이종열 중국총연합회장, 문광순 유럽총연합회장, 이종성 아시아총연합회장, 오윤호 미주서부총연합회장, 주진안 일본연합회장이 사역 소개를 했다. 채종주 대회부회장의 석찬기도와 저녁 식사에 이어 대구연합회 합창단이 특송을 불렀으며, 저녁집회1에서는 한국교회를섬기는공동체 대표 김석년 목사(한성지회 지도목사, 서초성결교회 원로목사)가 ‘우리, 하나되자. 하

나님의 경영으로!’(롬 15:19~20)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석년 목사... 성경적 경영
김 목사는 “하나님의 경영은 첫 번째 ‘성경적 경영’으로, 매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경영의 각성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경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도적 삶으로 하나님 경영의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임마누엘 경영’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경영의 실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님 경영의 4가지 축복으로 자신감, 지혜, 귀인, 하나님 선행의 기적을 꼽았다. ‘전도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13일 둘째 날은 매일 살아가는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정직한 경영, 신실한 관계, 선한 영향력, 삶으로 전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아침경건회는 한재욱 강남비전교회 목사가 ‘내가 먼저 잔이 넘쳐야 합니다’(창 12:1~3)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사업자가 먼저 내 사명과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발견하여 기쁨과 영광이 충만해야 한다. 또 사업체가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에어포스원 사업체’가 되길 바랍니다”고

도전했다.

윤학렬 영화 감독... “우리는 부흥자로 캐스팅 되었다”
영화 ‘부흥’의 윤학렬 감독은 “특별히 이 땅은 부흥의 땅이고, 우리는 부흥자로 캐스팅되었다”라며 “정말 간절할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땅의 부흥과 내 시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며 열정적으로 간증했다. 김명식 찬양사역자는 찬양을 중심으로 간증으로 무대를 꾸몄다. 이종성 아시아총연합회장은 일터사역 성공사례1에서 “성경을 바로 알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또 박선규 대표(광화문지회)는 간증2에서 전도의 성공사례를 통해 지회를 살아나게 한 ‘331 세계출전도운동’을 통한 현장 사례 및 전도·정착 스토리를 전했다. 최병호 국제혁신영재사관학교 교감은 17세 때 예수님을 믿은 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전했다. 이후 임수정 대표(양화진지회)의 일터사역의 성공사례2, 전 삼성전자 사장 이돈주 장로의 특강3 ‘AI 시대, 일터선교사의 사명’, 이영천 회장(안산드림지회)의 간증3, 중앙회 본부별 사역보고, 장세호 대회장의 사역보고 및 말씀, 한창수 엠마오교회 목사의 저녁집회 말씀 등으로 이어졌다. ‘변화되자’는 주제로 진행된 14일 마지막 날은 복음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일터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되는 시간을 가졌다. 아침경건회는 광수광 푸른나무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윤향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의 특강4, 박현준 차세대위원장의 차세대 비전선포 후 폐회 및 파송식에서 하정완 꿈이있는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우수지회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지희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오,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김

■ 발 행 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이 사 장 : 폴 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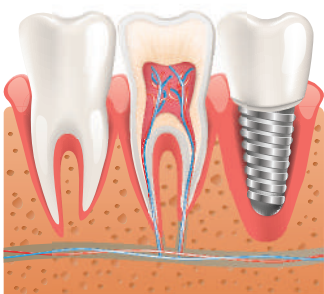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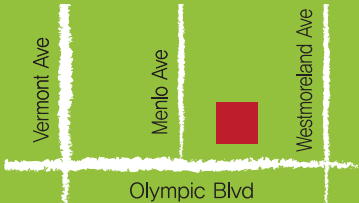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자신보다

가족 걱정을 늘 먼저 하는 당신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SMG는 진료 이전에
당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사와 병원,
보험 네트워크를 연결한 이유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30년동안 당신을 지켜온 SMG 기록

5,500명의 의료진 | 폭넓은 병원 및 보험사 | 우수 의료 제공자



800.611.9862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미군 개입에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박해 계속... 공격 오히려 증가

미국의 군사 개입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과 납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공격이 남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의 납치 및 강제 개종 사건을 지원해 온 변호사 '자베즈 무사'(Jabez Musa·가명)는 13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이 장기적으로 기독교인 박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사는 "미국이 전투기를 동원해 공격자들을 폭격했을 당시 기독교인들은 작전이 지속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작전이 지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지역에서 공격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제는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수년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다수 거주하는 농촌 공동체를 겨냥한 무장 공격이 이어져 왔다. 북부 지역에서도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IS) 연계 세력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으로 폭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도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인 대상 폭력 문제에 개입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 공동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미 국무부는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 침해를 용인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미군은 지난해 성탄절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이슬람국가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으며, 2026년 초에는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에 병력을 파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방장관은 당시 작전으로 수백 명의 IS 무장대원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군 병력 대부분은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했다. 무사는 이 같은 철수가 미국의 개입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무사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부 공격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등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기서 끝난다"며 "무장세력의 공격은 매일 이어지고 있고 공동체에는 보호가 없다. 주민들



나이지리아의 국기 ©ChatGPT

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며 사람들이 살해되고 여성들이 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활절 주일 교회 공격 과정에서 풀라니족 무장세력에 납치된 한 여성과 세 자녀의 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12세, 6세, 4세인 세 자녀를 둔 여성이 다른 교인들과 함께 숲으로 끌려갔으며, 탈출 과정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4세 딸이 숨졌다.

무사에 따르면 이 가족은 지난 8월 1일 탈출한 뒤 이를 동안 음식과 물 없이 맨 발로 숲을 걸었다. 가족들은 밤에는 숲속에서 잠을 잤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4세 딸이 결국 숨졌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은 납치된 상태에서 출산했지만 의료 장비가 없어 탯줄을 제대로 자르지 못했고, 아기는 3주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의 납치 및 강제 개종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무사는 조스(Jos)에서 납치돼 바우치주로 끌려간 한 소녀가 이슬람 조직인 히스바(Hisbah)를 통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위기에 처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사는 "이런 소녀들이 많이 있다"며 "납치된 뒤 개종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무슬림이 된 기독교 소녀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기독교인 변호사들과 언론인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납치된 여성과 소녀들을 찾아내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사는 국제사회에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공동체가 공격을 받아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하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인이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美 목회자, 사역 중단 고민의 주요인

미국 목회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최근 5년 동안 목회 사역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그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문화와 리더십, 조직 내 관계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비치 원시티교회(One City Church) 담임목사이자 리더십 코치인 재러드 파박(Jared Fabac)의 의뢰를 받은 '문화 부활 지수'(Culture Resurrection Index, CRI)는 최근 미국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지난 5년 동안 목회 사역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74%는 '교회 문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63%는 "어려운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77%는 "교회 내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더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파박 목사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떠나는 것은 신앙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조직 관리와 갈등 조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회자들은 어려운 직원을 이끌고, 힘든 회의를 진행하며,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학교는 설교를 가르치지만, 조직을 이끄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

된다. 바나그룹의 2026년 연구에서는 미국 개신교 담임목사 가운데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나타났다. 또 "소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5년 72%에서 2026년 52%로 낮아졌다.

전직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전직 목회자 730명 가운데 18%는 '교회 내 갈등'을, 16%는 '소진'(burnout)을 사역을 떠난 이유로 꼽았다. 가장 많은 40%가 꼽은 이유는 '소명의 변화'였다.

영국성공회에서 목회자의 소진과 고립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10년에 걸쳐 진행된 'Living Ministry' 연구의 최종 조사에서는 성직자 40%가 "사역에서 고립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상당수가 소진과 재정적 압박, 행정적 부담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72%는 "사역을 통해 소명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해 목회 현장에 대한 강한 사명감 역시 확인됐다.

이번 조사들은 목회자 이탈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영적 상태나 소명의 약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회자의 영적 돌봄과 함께 갈등 관리, 조직문화, 리더십,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원하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목회자를 설교자이자 영적 지도자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사람과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교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3rd fl.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 (영어편)
새벽예배: 화-토 (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2부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월-토)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7:00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에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운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등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금요일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에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토요새벽예배 E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 6:30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주일 2부예배
새벽기도 (화-금) (토) 오전 6:30

오전 8:00 오전 10:30 오전 5: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주일학교
수요성경공부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c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헌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창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영어유치부, 만5동부,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찬양회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담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세계종화기독교연맹 “중국 교회, 복음주의 오해부터 풀어야”



WCA 중국 및 중화권 특별대사인 예제키엘 탄(Ezekiel Tan)이 2026 아시아 교회와 선교 콘퍼런스 제1차 전체회의에서 폐회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IChina Christian Daily / Phoebe Sun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계복음연맹(WEA) 산하 세계종화기독교연맹(WCA)의 에스겔 탄 사무총장이 전 세계 화교 기독교인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중국 교회 내에 퍼져 있는 복음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8월 11일 보도했다.

탄 사무총장은 최근 개최된 아시아복음연맹(AEA) 주최 ‘2026 아시아 교회 및 선교 대회(ACCM)’에 참석해 세계종화기독교연맹의 비전과 과제를 상세히 밝혔다.

지난 2023년 공식 출범한 세계종화기독교연맹은 국가나 지역 단위가 아닌 단일 민족(화교)을 중심으로 결성된 최초의 연합체로, 전 세계 흩어진 화교 기독교인들의 자원 공유와 선교 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종화기독교연맹은 출범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단기 핵심 과제를 추진 중이다.

첫째는 대중적 인지도 확보다. 둘째는 싱가포르 국제 분부 외에 대륙별 지역 사무소를 설립해 조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며, 셋째는 서구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나 화교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독자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탄 사무총장은 기독교 인구의 다수가 남반구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서구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화교 공동체만의 신학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탄 사무총장은 전 세계 화교 기독교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본토 교회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복음주의’에 대

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수의 중국인들이 미디어의 단편적인 보도로 인해 복음주의를 특정 미국 정치 세력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념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적 번역에서 파생된 오해도 짙었다. 영어권에서 ‘복음주의적’이라는 단어는 특정 교단이 아니라 성경과 복음을 중심에 두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뜻한다. 그러나 중국어로 이를 ‘복음파(福音派)’라고 번역하면서 마치 하나의 협소한 분파나 교단인 것처럼 의미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복음연맹이 각국의 문화적 상황에 맞는 토착화된 기독교 발전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 삼자교회가 표방하는 자치, 자양, 자전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만큼,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중국 교회와의 오해를 불식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기독교 선교와 제자 훈련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탄 사무총장은 통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제자 훈련의 본질은 결국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언했다. 과거 기술을 배우던 도제가 스승의 집에 머물며 전인적인 가치관을 전수받았던 중국의 전통적인 사제관계를 언급하며, 기독교의 제자 훈련 역시 단순한 프로그램이 나 지식 전달이 아닌 삶을 나누는 긴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기는 이러한 관계를 보조하는 도구로서 올바르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니엘 최 기자

캐나다 83세 여성 가족 “조력사망… 동의 능력도 없었다”

캐나다의 한 가정이 83세의 할머니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반해 조력사망을 받았으며, 당시 해당 시술에 동의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브리짓 ‘GG’ 슈테게만(Britte “GG” Stegemann)은 지난 7월 10일 캐나다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적 조력사망 제도에 따라 사망했다. 가족에 따르면 GG는 당시 자신에게 형제자매가 몇 명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GG의 가족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시스템의 실패와 투명성 부족,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GG에 대한 처우가 “의료윤리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GG의 손녀인 브리짓은 법적 위임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GG의 의료 및 개인적 돌봄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주된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해왔다.

지난 2년간 요양시설에서 생활해온 GG는 올해 초 치료가 불가능한 4기 위암 진단을 받았다.

가족에 따르면 GG가 사망하기 약 두 달 전 조력사망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당시 GG는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가족은 주장했다.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GG는 MAID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신앙에 어긋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족은 이 회



브리짓 ‘GG’ 스테게만. ©페이스북 캡처

의 직후 의료진이 조력사망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으며, 당시 법적 대리인이었던 손녀 브리짓이 10일간 여행을 떠난 사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 기간 GG를 방문한 다른 가족들은 그녀의 상태가 “매우 쇠약하고 거의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런데 7월 6일 GG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가족에 따르면 GG는 침대에 똑바로 앉아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했다. 이에 가족들은 이전에 GG가 “왜 그렇게 심하게 진정된 것처럼 보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조력사망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또 다른 회의가 열렸고, 가족들은 누가 이 회의를 요청했는지 의료진에게 물었다. 그러나 의료진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족은 손녀 브리짓이 10일간 자리를 비운 동안 의료진이 GG와 두 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의료진은 GG가 조력사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가족은 이를 “매우 충격적인 회극”이라고 표현했다.

이미경 기자

故 사바즈 바티 파키스탄 장관 유산 재조명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이 8월 11일 국가 소수종교의 날을 맞은 가운데, 파키스탄 최초의 기독교인 연방 장관이었던 고(故) 사바즈 바티의 입법 성과와 유산이 정치권과 교계를 중심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파키스탄 건국 이래 소수종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 남용에 반대하다 지난 2011년 3월 암살당하며 국제사회에 종교적 자유 수호의 상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교계와 정치권에서는 그가 생전 이룩한 소수종교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들이 그의 진정한 유산이라고 입을 모은다.

바티 장관은 의원 시절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등 파키스탄 소수종교 공동체를 위한 다수의 제도적 개혁을 이끌었다. 2009년 파키스탄 인민당(PPP) 주도 정부를 설득해 8월 11일을 ‘국가 소수종교의 날’로 공식 지정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날은 1947년 파키스탄 국부 무함마드 알리 진나가 신앙에 따른 시민권 차별 금지를 선언한 날이다.

또한 그는 연방 정부 공직의 5%를 소수종교인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도입해 공공기관 내 소수자 대표성을 확대했다. 파키스탄 상원에 비무슬림을 위한 4석의 예비 의석을 영구적으로 확보한 것도 그의 핵심 성과다.

이 밖에도 바티 장관은 타 종교 간 대화 장려, 교과서 내 편협한 종교적 내용 삭제 등 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0년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를 공개적으로 변호하며 허위 고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로 인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그는 2011년 파키스탄 탈레반 연계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됐다.

바티 장관이 남긴 개혁 법안들은 현재



사바즈 바티(Shahbaz Bhatti).©YouTube Screenshot / France 24 English

파키스탄 소수종교 권리 보호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전 동료들은 그가 근절하고자 했던 종교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 내 기독교 등 소수종교 공동체는 헌법상 보장된 시민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공격, 강제 개종, 미성년자 강제 결혼 및 신성모독법 악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파키스탄 소수자 동맹(MAP)의 아르말 바티 의장은 5% 공직 할당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정부 부처가 소수종교인 채용 공고를 투명하게 내지 않거나, 채용을 하더라도 전문직이 아닌 하위직에 편중 배치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신성모독법의 악용 방지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초드리 전 의원은 조작된 신성모독 혐의로 여전히 수백 명이 수감되거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파키스탄 정부 차원에서 허위 고발자를 엄벌하는 강력한 입법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키스탄 교계는 바티 장관이 애써 마련한 입법적 성과가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법 집행과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최 기자

닉 부이치치의 삶과 신앙 담은 영화 ‘No Limbs, No Limits’ 9월 25일 개봉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난 복음전도자이자 동기부여 강사 닉 부이치치의 삶과 신앙을 조명한 영화 ‘노 림스, 노 리미츠(No Limbs, No Limits)’의 새 예고편이 공개됐다.

오는 9월 25일 미국 극장 개봉을 앞둔 이 영화는 부이치치가 어린 시절 겪었던 학교폭력과 외로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 기독교 신앙을 통해 희망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담았다.

어린 시절 부이치치의 모습과 함께 팔과 다리 없이 성장하며 또래 친구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겪었던 고립감도 담겼다. 부이치치는 “아무도 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며 “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하곤 했다”고 회상했다.

43세인 부이치치는 호주에서 태어나 선교단체 ‘닉브이 미니스트리스(NickV Ministries)’를 설립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포 킹 앤 컨트리 of 최신 앨범에 수록된 ‘미라클’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형성해준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말했다.

부이치치는 “‘미라클’을 처음 들었을 때 걸음을 멈출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엘과 루크가 내 삶의 사명을 규정해준 메시지를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기적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부이치치는 네 개의 팔다리가 모두 없는 희귀 선천성 질환인 사지무형성증을 갖고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외로움과 학교폭력,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경험했지만, 신앙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고 간증해왔다.

‘노 림스, 노 리미츠’는 과거 영상과 가족 인터뷰, 사역 현장의 모습을 통해 부이치치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미경 기자



No Limbs, No Limits 영화 포스터

부이치치는 하나님께 팔과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 기적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오늘이라도 내게 팔과 다리를 주실 수 있다”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꾸지 않기로 선택하신다면, 그분은 내 상황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부이치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고난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천국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내 간증을 통해 기독교 메시지를 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며 “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부이치치는 87개국을 방문하고 각국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글로벌한가리교회(가리주)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대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00am (만 교역부 예배)
주일 2부 11:20am (만 교역부 예배)
환어침드루 1:30pm / 영아대학부 2pm / 수요경배(찬양(수) 7:30pm
새벽예배 평일 월-금 5:30am, (토) 6am
EM(DSCP) 1부 9:30am / 2부 11:00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 교회를 교회되게 -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www.dongshi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교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8:00 am 새벽예배: 5:30am(화-금)
주일예배 2부: 11:00 am 유아,유치부: 11:00am(주일)
토요일 새벽 : 6:30am(토) 초,중,고등부: 11:00am(주일)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사랑으로 하나되고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213) 999-9298 www.Nachimban.org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교등부(이가족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만유채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침드루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am.com

주일 1부 8:00AM 중교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노인일배 오후 7:30 한어 침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i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오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기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기에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일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전거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아시아미용가별화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변는 숙변 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참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GMC 한미연회, 이민법 온라인 세미나

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회 평신도위원회(위원장 김성권 장로)가 오는 9월 15일(화)과 22일(화) 오후 5시 “교회와 성도를 위한 미 이민법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는 물론, 한인 이민교회 성도들이 미국 이민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강의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현철 권사(제너레이션교회, GA)가 맡는다.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이민법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교회가 알아야 할 이민법을 주제로 목회자의 종교비자(R-1)와 영주권 절차, 그리고 미국내 이민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사항을 다룬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미국 이민정책과 영주권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또한 서류 미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정보와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Zoom으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등록은 GMC 한미연회 웹사이트 (<https://kagmc.org/>)에서 할 수 있다.

▲ 9/15(화) 교회가 알아야 할 이민법 (대상: 목회자/



GMC 한미연회
이민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
SEP 15 & 22 (TUE) 8 PM EST



강사 | 이현철 권사
이민법 전문 변호사
(제너레이션교회, GA)



온라인 세미나 등록하기

9.15

교회가 알아야 할 이민법 (대상: 목회자/평신도 리더, SPRC)
- 목회자 종교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등등

9.22

한인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민법
- 2025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변화 내용
- 영주권 신청 시 주요 내용
- 서류 미비자를 위한 내용

평신도 리더, SPRC) 목회자 종교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등

▲ 9/22(화) 한인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민법 2025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 변화 내용, 영주권 신청시 주요 내용, 서류미비자를 위한 내용
날짜: 1차 - 9월 15일(화) / 2차 -9월 22일(화)

송정명 목사의 멘토링 ...50년 목회 여정 나눈다

목회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와의 만남’이 오는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월드쉐어 USA 바나바 사역팀(대표 강태광 목사)이 주관한다.

9월의 멘토로 초청된 송정명 목사는 ‘50년 사역여정, 감사와 아쉬움-내가 50대 목회자로 돌아간다면?’을 주제로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후배 목회자들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송 목사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미주평안교회 원로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번 모임은 특히 목회자 20명을 초청해 진행되며, 오랜 목회 경험을 가진 송 목사의 사역을 통해 목회 현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9월의멘토-송정명 목사

“멘토와의 만남”

주제: 50년 사역여정, 감사와 아쉬움
—내가 50대 목회자로 돌아간다면?—

• 일시: 2026년 9월 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실
621 S. Virgil Ave. # 455 LA, CA 90005

• 대상: 목회자 20명 초청합니다!

“모심나데”

보가원에서 라온교회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목회자를
다들오면 멘토로
오실까요?

영광 박태환 목사
T. 923.578.7933
김민선 목사

멘토: 송정명 목사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
미주 평안교회 원로 목사
전 월드비전 대표이사
전 미주 복음방송 사장

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LA 621 S. Virgil Ave. #455, LA, CA 90005)에서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323) 578-7933으로 하면 된다.

한편, 월드쉐어 USA 바나바 사역팀은 지난 6월 1일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를 멘토로 초

청해 에베소서 강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강의 외에 질의 및 문답 시간을 통해 후배 목회자들이 평소 품고 있던 목회에 관한 고민과 질문에 대해 나누고, 박성근 목사가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과 멘토링을 제공했다.

김민선 기자

LA 시니어 센터, 음악과 인문학 강연

LA한국교육원(원장 이병승)은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5일(화)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미술·음악·문학 등 인문 콘텐츠를 LA지역 한인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이번 강연은 8월 25일(화)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LA 시니어센터에서 진행된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가인 이인현 강사가 “피아노로 듣는 인생의 선율: 위대한 삶, 위대한 음악”을 주

제로 쇼팽과 베토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게 된다.

이번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강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접수 받는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영혼의 오아시스에 잠시 머무십시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게으른 사람이 될 것 같아 계속 달립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계는 과열되고, 충전하지 않는 배터리는 결국 방전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탈진하고, 탈진이 쌓이면 소진에 이릅니다. 소진된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의욕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삶의 활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재충전을 위해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재충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멈춤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막 6:31). 예수님은 필요한 때 잠깐이라도 멈추어 쉬라고 가르치십니다. 짧은 멈춤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하늘을 바라보고,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왜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잠시 멈춤 때 고요를 경험합니다. 멈춤은 고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몸이 멈추면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깥의 소음이 잦아들고 내면의 소음마저 잠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몸은 한곳에 있지만 마음은 수십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식만이 아니라 고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사 30:15).

고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고요는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방향을 다시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의 공허와 상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합니다.

둘째, 잠시 멈춤 때 영혼이 재충전됩니다. 재충전의 시간은 사막에서 오아시스에 머무는 시간과 같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에게 오아시스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고, 그늘 아래 머물며, 지친 몸을 쉬게 해야 다시 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와 찬양, 침묵과 독서, 산책은 영혼의 오아시스

우리 인생에도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말씀 묵상은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기도와 찬양, 침묵과 독서도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자연 속의 산책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도 영혼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머무는 동안 지친 몸이 회복되고, 흐려진 생각이 맑아지며, 메마른 감정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을 향한 열정이 회복됩니다. 영혼의 재충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전자기기가 전원에 연결될 때 충전되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충전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사 40:31).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셋째, 재충전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

명의 에너지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어렵습니다. 빈 잔으로는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메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 서라도 우리는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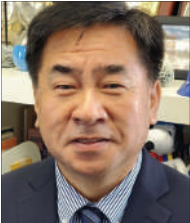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정기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재충전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5:5). 재충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 오래 섬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 멀리 걸어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났다면 서둘러 떠나지 마십시오. 그곳에 잠시 머무십시오. 생수를 마시고, 그늘 아래 쉬며, 영혼을 다시 충전하십시오. 함께 머무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순례길에 필요한 지혜를 얻으십시오.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쉼은 사명을 더욱 아름답게 완수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영적 재충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제이 팍 칼럼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박 상 준 의장
피코 유니온 주민의회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인생은 긴 여행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보내온 그림 메시지에 적혀 있던 이 글귀가 온종일 나의 머릿속에 길게 머물러 있습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다는 그 나지막한 위로는, 어쩌면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와 사명을 맡기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응원이었음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날부터 부르는 그날까지, 삶이라는 이름의 거룩한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때로는 학창 시절처럼 여럿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은혜를 나누던 행복한 수학여행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오롯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며 걸어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광야의 길격이 되기도 합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는 날도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를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길 사이사이에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슴 가득한 평안과 따스한 행복의 순간들도 늘 함께 숨 쉬고 있었습니

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라는 노트 위에 믿음의 글을 쓰고 또 지우며, 참 많은 시행착오의 기행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살아갑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이 땅 위에서 뚜렷하고 거창한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음지도 모릅니다. 그저 길가에 잠시 숨을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사를 느끼며, 오늘도 뚜벅뚜벅 담담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어깨에 묵직하게 짊어진 삶의 여행 배낭을 고쳐 메며, 주님 앞에서 빠뜨린 순종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정성스레 점검해 봅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 그동안 늘 곁에서 함께 걸어주던 정든 동반자들과 멀어지고, 깜깜하고 외로운 밤길을 홀로 걸어야 하는 외로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지친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행을 여기서 그만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턱밑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동반자들과 공동체가 보여주는 따뜻한 희망, 주님의 사랑에 진 마음의 빛,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삶의 여행을 멈출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거친 숨을 고르고 다시금 기도하며 신발 끈을 고쳐 매게 됩니다. 이 길고도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납니다. 함께 걷기도 하고, 주신 은혜에 날아오를 듯 뛰기도 하며,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눈물로 기도하기

도 합니다. 그러다 잠시 멀어졌던 이들과 또 다른 뜻밖의 장소에서 반갑게 재회하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삶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신앙 기행문이 되어갑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내 발길이 닿는 이곳저곳을 두루 살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쉬어가려 합니다. 만약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처럼 잠시 길가에 가볍게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려도 괜찮겠지요. 길가 휴게소에 들러 반갑게 만난 믿음의 동료들과 소소한 세상 이야기와 은혜를 나누고, 어제 피곤하여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미루어두었던 기행문 노트를 가만히 꺼내어 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남은 감사의 고백들을 차분히 적어 내려갑니다.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한국부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영리단체및교회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DIRECT PAY PROGRAM 핵심 혜택



**최대 40%
현금 환급**

설치 비용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세금이 없어도
OK!**

비영리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



**전기요금
절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운영 예산
부담 감소



**친환경 &
ESG 실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상담받고 최대 40% 절감혜택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10만 불짜리 솔라 공사를
**실제 6만 불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40% 다이어트, 효과는 100% 그대로!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n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세계등대교회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213) 380-9931
<https://lighthousemissionchurch.com/>



**B T S
SOLAR
DESIGN**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213-500-8000

✉ btssolar@gmail.com www.btssolar.com

☑ 전문 엔지니어 상담

☑ 맞춤형 설계 & 시공

☑ 정부 인센티브 최대 활용

☑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

이상명의 광장과 골방

AI 시대, 목회자가 마주한 네 가지 균열 (2)



이 상 명 총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지난 호에 이어서) 물론 AI를 통해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하게 된 성도도 있다. 문제는 탐구의 시작이 아니라 귀결이다. 개인화된 탐구가 공동체적 고백으로 수렴될 때는 유익하다. 그러나 각자의 탐구가 공동의 나눔 없이 굳어질 때, 10년 후 같은 예배당에 앉은 성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저마다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날이 온다.

가장 실제적인 대응은 교회 고유의 신앙 언어를 의도적으로 빚는 것이다. 구원, 은혜, 성령, 기도, 교회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는 방식으로 담은 열 페이지 안팎의 신학 언어 소책자를 성도들과 나누기를 권한다. 이 공동의 언어가 먼저 뿌리내려 있을 때, AI는 분열의 씨앗이 아닌 보완의 도구로 자리를 찾게 된다.

목회자의 영혼: 효율이 쉼을 잡아먹을 때

AI를 도입한 어느 목회자는 처음 몇 달간 시간의 여유를 경험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더 바빠져 있었다. 설교 준비 시간이 줄었으니 심방을 더 했고, 행정이 빨라지니 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AI가 만들어준 빈 시간은 금세 다른 사역으로 채워졌다. 자

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목회자의 일정은 여백을 싫어한다. 1년 후 그는 생애 최악의 번아웃 앞에 섰다.

더 교묘한 것은 AI가 만들어내는 비교다. 즉각 생성되는 완벽한 설교 초안 앞에서 목회자는 자신의 작업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새벽에 울며 기도하며 빚어낸 설교, 수십 년간 쌓아온 묵회 직관, 이 모든 것이 AI의 깔끔한 출력물 앞에서 초라해진다.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목회자의 세 가지 유혹으로 “연관성(relevance), 장관성(spectacle), 권력(power)”을 꼽았다. 쉽게 말하면 “나 요즘 뜨는 사람이야”, “내 설교 보면 깜짝 놀랄걸”,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의 유혹이다. AI가 제공하는 효율과 완성도는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을 동시에 건드린다. AI 시대의 번아웃은 ‘너무 많이 한다’가 아니라 ‘충분히 했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온다. 그리고 그 느낌은 소명의 뿌리를 잡아먹는다.

그러나 갈멜 산 승리 후 광야 로템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명이 아니라 쉼과 음식과 침묵을 먼저 주셨다(왕상 19:4-7). 하나님의 처방전에는 ‘사역을 더 하라’는 항목이 없었다. AI가 확보해준 시간을 더 많은 사역이 아닌 더 깊은 임재와 회복으로 향하게 한 목회자들은, 오히려 묵양의 깊이를 되찾았다고 고백한다.

목회자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기를 권한다. AI 사용 시간이 늘어난 만큼 기도와 묵상 시간도 함께 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AI가 확보해준 시간을 미리 달력에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이 효율의 함정을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런데 영혼이 고갈된 목회자에게는 한 가

지 공통된 징후가 있다. 안으로 쫓기는 사람은 밖을 향해 말할 여력이 없다. 번아웃의 가장 은밀한 결과는 설교 준비의 부실이나 성도 돌봄의 소홀이 아니다. 가장 먼저, 가장 조용히 포기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발언이다. 네 번째 균열은 거기서 시작된다.

예언자적 사명: 교회가 침묵할 때 세상이 말한다

아모스는 당대의 경제 구조를 직시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겔 3:17-18)고 하셨다. 파수꾼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공모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말하고 있는가?

AI 활용 세미나와 묵회 적용 논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AI가 만들어내는 노동 구조의 변화나 알고리즘 윤리 문제에 대해 교회가 공적으로 신학적 입장을 밝히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미주 한인 교단 차원의 AI 윤리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회가 AI 도구를 ‘어떻게 잘 쓸까’를 논의하는 속도에 비해, AI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신학적으로 묻는 목소리는 현저히 조용하다. WCC가 2023년 AI 윤리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신학교가 기술 윤리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한 것은 교회가 이 의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선례다.

성도들은 이 문제를 매일 직면한다. 알고리즘 편향으로 취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민자 이웃, AI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는 한인 노동자, 딥페이크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까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창 1:27)된 존재들이다. 인간의 존

엄은 알고리즘이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기술이 인간을 섬겨야지, 인간이 기술의 효율을 위해 최적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AI 시대의 교회가 선포해야 할 예언자적 언어다.

결론

강단의 인격성, 공동의 신앙 언어, 목회자의 영혼,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 이 네 가지 균열은 모두 서서히 진행된다. 급격한 위기는 대응하기 쉽다. 아무도 ‘이렇게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되어 있는 균열이 더 치명적이다.

그러나 이 위기들은 동시에 교회의 소명을 가장 선명하게 재확인하는 역설적 기회다. AI가 설교의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할수록, 그 어떤 알고리즘도 통계화할 수 없는 것들—본문 앞에서 밤을 새운 씨름, 특정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흘린 눈물,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며 빚어낸 신학 언어, 세상을 향해 울리는 파수꾼의 목소리—이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지가 오히려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처음의 목사 A로 돌아가자. 그는 강단에서 내려오며 물었다. “이 설교는 과연 나의 것인가.” 그 질문이 불편했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답이다. 씨름의 흔적, 눈물의 자국, 특정 성도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쳐 쓴 문장들이야말로 설교를 ‘그의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AI가 끝내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다. 도끼가 나무꾼 위에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듯(사 10:15), AI는 소명 위에 스스로를 높일 수 없다. 그 균열의 지도는 이미 그려져 있다.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를 읽는 용기다.

진유철 칼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어려움을 만날 때는 내 마음이 없는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지식이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점점 더 없는 것만 보이고 기죽게 되어 결국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패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계19:16)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이의 총만함”(엢 1:23)이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과 죄, 사망, 심판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4:7)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면 뭘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승리의 행동과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루터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부인인 ‘카타리나 본 보라’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누가 죽었소?’ 그러자 카타리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카타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루터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귀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된다면, 역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간절한 갈망을 일으켜야 합니다.

진짜를 붙들면 헛된 것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서서핑 선교사(Elizabeth Johanna Shepping)는 독일 출생으로 미국에

서 간호학을 전공한 뒤, 1912년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조선에 와서 전남 광주에서 23년 9개월 선교하다가 53세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나환자들을 직접 손으로 돌보았으며, 버려진 아이들과 과부 등 14명의 수양 자녀를 직접 거두어 키웠습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 교육받지 못하던 조선 여성들을 위해 이일학교를 설립하였고, 한국 현대 간호학의 기틀도 다졌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 조선 땅에 왔지만 차별과 고통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견뎌내게 한 책상 옆에 써 붙여놓은 좌우명의 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수천 명의 한센인과 과부, 통곡하는 조선인들이 거리를 메운 채 “어머니,어머니”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You

Tube

한인동산장로교회
이홍길 목사

“목회의 본질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

“목회자는 떠나도 교회는 남아... 다음 목회자에게 건강하게 이어주고 싶어”

지난 2월 한인동산장로교회 제 3대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이홍길 목사가 담임목회 6개월 차를 맞았다. 이에 본지는 이홍길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뉴욕 웨체스터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이자 50년 역사를 이어온 한인동산장로교회를 이끌어 갈 목회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 목사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의 강점과 필요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여전히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목회에 대한 철학과 방향은 분명했다. 새로운 방법론을 앞세우기보다 목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교회가 이어온 전통과 저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변화는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부임 직후 쓴 '사랑의 목회서신'에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목회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예배와 양육, 소통을 우선 과제로 삼아 교회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다음은 이홍길 목사와의 일문일답.

-한인동산장로교회에 부임한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계속 알아가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사를 왔고 한 달 반 정도 적응한 뒤 2월에 위임식을 했습니다.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했고 교회 안에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성도분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정신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을 많이 세우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충분히 리서치하고, 확인된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청빙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자주 내려놓게 됐습니다. 청빙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교회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빙이 최종 결정된 뒤에도 두 달 동안 여러 계획을 세우려고 했지만 아내와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내려놓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방향이 있을 테니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보여주는 부분은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 이홍길 목사 ©기독일보

왔습니다. 50여 년 된 교회에는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과 저력이 있고, 앞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함께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부임 직후 쓴 '사랑의 목회서신'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를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철학은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방법론보다 철학적인 부분에서 먼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냐는 방법적인 문제보다 어떤 마음과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새로운 것보다 기본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기본이 잘돼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도 크게 빗나가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 교회에 맞는 방향과 계획을 하나씩 세워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면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

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 담임을 맡으면서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지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다.

2월 위임식 이후 3월에 제가 처음 당회를 인도하면서 당회원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저보다 동산교회를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의 장점 세 가지와 변화가 필요한 부분 두 가지를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다”, “이것은 바뀌야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대안도 같이 제안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도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계속 성도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당회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느꼈던 부분이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면서도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할 부분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고, 두 번째가 양육이며, 세 번째가 소통입니다. 올해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시작해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에 상당한 변화를 주셨습니다. 부임 직후라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 다. 제가 2월에 위임식을 하고 예배를 바꾼 것이 4월 둘째 주니까 한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고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당회원분들과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천천

히 가도 됩니다. 지금 그대로 가도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과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그런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3년, 좀 더 길게 보면 5년 정도가 지나서 변화를 주려고 하면 그때는 상당히 늦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서 하나 정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찬양부터 순서까지 전체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어르신들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찬송과 예배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분명 불편함도 있으셨을 텐데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4월 둘째 주부터 예배가 새롭게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자마다 휴지

를 놓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니 구역별로 손수건을 준비해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 성도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친교실에서도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지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양육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오랜 시간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양육에 대한 갈급함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성경공부에 참여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양육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도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야 합니다. 양육시스템을 제대로 세우는 데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우리 교회는 커피브레이크를 합니 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회원분들에게 먼저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필그림선교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직접 경험해 보시고 우리 교회와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회원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추진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김대원 기자
[다음호에 이어서 계속]



한인동산장로교회 성전 앞에서 이홍길 목사. ©기독일보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213-434-8947

f1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1plumbing

 @F1Plumbing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주 예수의 장엄한 귀환을 바라보며

종말론 논쟁 속 오해받았던 데살로니가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한국신약해설주석(KECNT) 10

김경식 | 감은사 | 436쪽

Word Biblical Commentary는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성경학자들이 집필한 최고의 성경 주석을 제공합니다

이 주석 시리즈는 본문의 근거 및 언어적, 구 조적, 신학적 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성경 신학의 틀 안에서 본문의 의미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통찰을 제시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 시리즈는 전문 신학자와 교수, 신학교 및 사역자 그리고 성경적 학문을 토대로 신학적 이해를 세워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탁월한 자료가 됩니다

김경식 교수가 저술한 『데살로니가전후서 주석』은 개혁신학 전통과 성경적 복음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본문 중심의 주석 작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이다.

본서는 단순한 신학적 논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본질과 종말론적 소망을 본문 자체에서 탐구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특히 본문을 문법적·역사적 관점에서 면밀히 해석함으로써, 당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밝히려는 학문적 성실성이 깊이 느껴진다.

김경식 교수 주석은 데살로니가전후서가 가진 신학적 핵심인 ‘소망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다. 그는 바울의 편지가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신앙의 인내를 독려하는 실제적 묵회서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본문이 쓰여진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풍부히 설명하고, 헬라어 원문 어휘와 문법 구조를 섬세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본문이 가진 신학적 메시지를 단순한 교리 해설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살아 있는 말씀으로 전이시키는 통로가 된다.

특히 본 주석의 해석 방법론에서 돋보이는 점은 ‘본문 중심 해석’이다. 김 교수는 신학적 전제나 교단적 입장을 본문 위에 덧씌우기보다는, 본문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해석적 절제와 정직함을 견지한다. 그는 주석 과정에서 개혁신학의 교리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본문이 교리적 틀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는 그가 신학적 일관성과 성경 해석의 학문적 엄밀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자임을 잘 보여준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초대교회가 종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서신이다. 그러나 이 서신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종말론적 해석 논쟁 속에서 오해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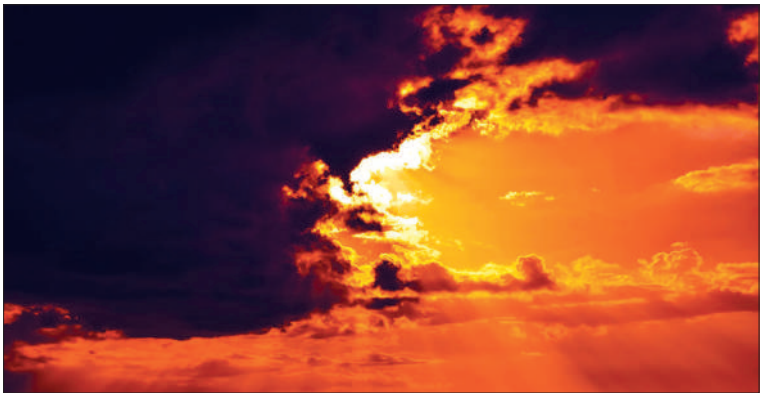
어떤 해석자들은 재림 시기나 징조에 초점을 맞춰 지나치게 예언적·시간적 차원으로 접근했고, 다른 이들은 상징적·영적 의미로 환원시켜 본문의 실제적 역사성을 간과했다. 김경식 교수는 이러한 양극단을 지양하면서, 바울의 종말론을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구속사적 시각’으로 해석한다. 즉 그는 바울이 종말을 단순한 미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현재 삶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현실로 이해했다고 밝힌다. 이러한 해석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주 재림’ 본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김 교수는 바울이 재림의 때를 특정하려는 시도보다는, 재림의 소망이 신자의 현재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뒀다고 해석한다.

저자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사랑, 인내를 가능케 하는 동력”이라고 정리한다. 이러한 관점은 바울의 종말론을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닌, 신앙적 실천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균형 잡힌 해석이다.

또 김 교수의 주석은 문법적·역사적 해석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본문이 지닌 신학적 함의를 현대 교회에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본문에 나타난 단어들의 문법적 구조, 접속사, 시제, 강조법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각 구절이 전달하는 신학적 뉘앙스를 명확히 드러낸다.

예컨대 ‘하나님의 택하심(살전 1:4)’에 대한 해석에서 그는 칼빈주의적 예정론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바울이 택함을 공동체적 위로와 확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해석은 예정 교리를 단순 논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신앙의 실제적 위로로 제시하는 개혁신학의 목회적 지향을 잘 반영한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또 다른 핵심은 ‘불법의 사람’에 관한 교리적 논의다. 김 교수



▲©픽사베이

는 이 부분을 지나친 상징주의나 문자주의적 해석으로 접근하지 않고, 바울이 당시 교회가 직면한 혼란과 위기 속에서 신자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경고를 전했다는 역사적 맥락을 강조한다.

그는 종말적 긴장 속에 신자는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인 것(살후 2:1)”에 대한 확신 속에 서야 한다고 풀이한다. 이러한 해석은 주석의 목적이 단지 지적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의 삶을 바로 세우는 신앙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형식 면에서도 본서는 학문성과 목회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있다. 각 단락은 본문 번역, 주해, 신학적 논평, 그리고 적용적 제언으

로 구성돼 있으며, 학문적 정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김경식 교수의 주석은 단순히 학문적 주해서로서의 가치를 넘어, 성경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선포돼야 하는지 보여주는 실천적 모범이다. 그는 본문 연구를 통해 성경을 객관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현장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태도는 학문적 냉철함과 영적 경건함이 함께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경 주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함, 서리리
잠언 19:21

Many are the plans in a person's heart,
but it is the LORD's purpose that prevails,
PROVERBS 19:21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생령통큰설령탕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GOOD MORNING SPECIAL EVERYDAY 7AM ~ 10AM

표고우거지해장국 \$10.96 +tax

굿모닝스페셜

통큰설령탕 \$10.96 +tax

북어국 \$10.96 +tax

간가나 좋아질 때까지!

주문시 “서민행복”으로 오더해주세요.

5주년 기념 투고스페셜 설령탕 \$10.99 Tax 포함가
설령탕, 백미, 김치, 깍두기
10AM ~ 2PM

시니어를 위한 ‘어른철 보양식’
삼계탕 스페셜
\$19.35 Reg. → \$14.99 +tax
7월 1일 ~ 8월 31일

*광고에 쓰인 음식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Uber Eats 딜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게오르크 플레겔의 ‘그려진 세계관’

400년 뒤에야 빛을 본, 독일 초기 바로크 회화 탄생 알린 저장

독일 정물화가 게오르트 플레겔
미술사학자 볼프강 뮐러 재조명
표현적 장식성과 정신적 가치도
사물 중심, 응축과 색조로 융합

17세기 초 유럽 예술의 중심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로 편중돼 있을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정물화라는 장르를 통해 독자적 문화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게오르크 플레겔(Georg Flegel, 1566-1638)은 사후 오랫동안 미술사의 변방에 머물렀으며, 그의 작품들은 종종 익명으로 취급되거나 네덜란드 화가들의 것으로 오인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킨 인물은 미술사학자 볼프강 뮐러(Wolfgang J. Müller)였다. 그는 기념비적 저서 『화가 게오르크 플레겔 1566-1638(Der Maler Georg Flegel, Frankfurt am main, 1956)』을 통해 플레겔을 ‘독일 정물화라는 장르를 실제로 창조한 인물’이자 ‘독일 초기 바로크 회화의 탄생을 알린 거장’으로 그 지위를 복원해 냈다.

뮐러의 연구는 단순히 잊힌 화가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네덜란드나 플랑

드르 정물화의 위세에 가려져 있던 독일 예술 특유의 ‘표현적 장식성’과 그 속에 깃든 심오한 ‘정신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

뮐러의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플레겔이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당시 유행하던 ‘매너리즘적 도식(Schema)’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한 부분이다. 매너리즘 미학은 화면 전체의 우아한 곡선이나 장식적 리듬을 위해 사물의 실제 형태를 왜곡하거나 다른 사물 뒤로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플레겔의 시각은 이와 궤를 달리했다. 뮐러는 ‘청어와 바르트만 저그가 있는 정물(1629-1631)’을 분석하며 플레겔이 ‘공간적 효과를 위한 겹침을 회피(Überschneidungen vermieden)’하고 사물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한 점에 주목했다. 식탁 위 빵과 청어, 양파와 유리잔은 어느 것 하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채, 고유한 자리를 지키며 조화를 이룬다.

뮐러는 이를 통해 화가가 사물을 화면의 부품이 아닌 ‘독립적인 개별자(unabhängige Einzelwesen)’로 대우했다고 보았다. 사물 하나하나가 타자에게 침범당하지 않고 존재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플레겔식 ‘개별성’의 실체였으며, 이는 대상을 수단화하지 않는 윤리적 차원의 미학으로까지



▲게오르크 플레겔, 청어와 바르트만 저그가 있는 정물화, 참나무에 유채, 15.5x32.5cm, 1629-1631.

격상된다. 이러한 개별 존재에 대한 존중은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동력이 된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인식 전환은 화가의 시선을 화려한 성상에서 소박하고 정직한 실재의 세계로 인도했다.

플레겔은 청어나 과일 같은 일상 이미지마저 창조의 신비를 간직한 주체로 마주하며, 그 속에 숨겨진 신성한 질서를 정성스럽게 길어 올렸다. 뮐러는 그가 “끈질긴 사유와 세밀한 작업을 통해 사물의 심연으로 들어갔으며, 사물들의 질서 속에서 예술적 조형의 비밀스러운 힘들을 시각화했다(Der Maler Georg Flegel, 134쪽)”고 분석한다.

사물을 부속품이 아닌 개개의 존재로 살필 때, 그것은 비로소 ‘피조물의 존재성’을 획득한다. 심지어 뮐러는 플레겔의 사물들이 외부 조명에 의해 정의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selbstleuchtende Lichtträger, 134쪽)’처럼 존재한다고 통찰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빈 제단은 피조물에 대한 경건한 관심으로 채워졌고, 플레겔은 그 관심을 소소한 일상 물건과 생명체로 확장했다. 비록 그것이 식재료나 생활용품일지라도, 플레겔의 캔버스 위에서 그것들은 창조주가 부여한 독특성을 지닌 피조물로서 그 존엄을 호소한다. 플레겔은 말년에 이르러 개별자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을 한 차원 높은 자리에서 통합하는 ‘유기적 총체성(organische Totalität)’에 도달한다. 사물들은 이제 ‘장식(Ornament)의 법칙’에 따라 서로 조응하며 화면 전체를 관통하는 리듬 속에 통합된다.

“그에게 개별 사물의 완벽한 객관적 재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물화 속에서 유기적 총체성(organische Totalität)을 형상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 화면 구성의 공간적·장식적 결합은 게오르크 플레겔만의 독자적인 성취로 간주되어야 한다(Der Maler Georg Flegel, 142쪽).”

사물을 나열하는 초기 방식에서 나아가,

개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발적 결합’은 플랑드르나 매너리즘 양식과는 차별화된 플레겔만의 예술적인 성취였다.

이러한 예술적 완성의 마지막 조각은 그의 신산했던 삶의 궤적이다. 1616년과 1623년 화가로서 기대를 모았던 두 아들의 잇따른 사망과 30년 전쟁, 흑사병의 공포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나, 뮐러는 이 비극이 역설적으로 플레겔을 ‘노년의 영적 성숙’으로 인도했다고 본다.

말년작 ‘촛불 정물화(1633)’는 전체적으로 낮게 가라앉은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다. 하지만 화면의 어둠을 뚫고 시선을 붙드는 이미지가 있다. 바로 ‘타오르는 촛불’이다.

당대 플랑드르 화가들에게 촛불은 생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바나타스(Vanitas)’의 전형으로 사용됐으나, 플레겔의 촛불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기능한다. 하마터면 어둠 속에 묻혀 미미해질 뻔했던 팬트리의 과일과 빵들을 따뜻하게 감싸안으며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사그라드는 소멸의 빛이 아니라 주위를 밝혀 존재를 드러내는 이 빛의 연출은 기존 전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 장면이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존재를 암시하듯, 주변 사물들의 실재를 따뜻하게 길어올린다.

이러한 빛의 온기는 곧 노년에 이른 화가가 자신의 생을 관조하며 획득한 성숙한 시선과 맞닿아 있다. 그림 속에 직접 화가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가 선택한 사물들과 그 사물을 비추는 따뜻한 불빛, 그리고 70세라는 ‘작가의 나이(Aetas factoris)’ 등은 그림을 화가 자신의 인격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슬픔의 심연을 통과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대상 세계에 대한 지극한 긍정이며, 화가가 살아온 시간과 삶이 응축된 ‘삶의 한 대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게오르크 플레겔, 촛불 정물화, 캔버스에 유채, 25.5x32.5cm, 1633, 카를스루에 쿤스트할레 소장.

“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남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오픈청지기재단과 CBS TV가 함께하는

천국의 찬양제

{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

시편 100:4

참가 대상

남가주 지역에 위치한
교회 성가대

접수 파일 형식

비디오: MOV, MP4
링크: YouTube

결선 일시

2026/10/25(일)
오후 5시

장소

남가주 새누리 교회
(신관)

참가 절차

예심을 통해 뽑힌 최종 8팀이
10월25일 오후 5시에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접수 방법

이메일
praise@openstewardship.com

시상 내역

1등 : \$10,000
2등 : \$7,000
3등 : \$5,000

예심 접수기간

2026/8/3 부터
2026/9/4 까지

주관/주최



후원



문의

213.674.7810
213.593.4885